

KIA 박찬호 부활에 돌아‘온’ 선빈·돌아‘올’ 도영까지

박찬호, 5경기 연속 안타
10일 사이 타율 1할 증가
김선빈은 복귀후 첫 안타
김도영 2군서 1타점 기록
KIA 테이블세터 준비 척척



시즌 초 부상과 부진을 함께 겪던 박찬호가 완벽하게 돌아왔다. 여기에 부상으로 잠시 자리를 비웠던 김선빈도 돌아왔고, 김도영의 복귀에도 청신호가 켜지면서 팬들은 조만간 KIA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는 테이블세터를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다.

특히나 박찬호의 부활은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다. 24일 KIA 타이거즈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박찬호는 9경기에 출전해 타율 0.188를 기록, 팬들에게 큰 실망을 안기고 있었다. 박찬호는 타석 수에 비해 삼진은 적었지만 타구가 계속 야수의 정면으로 향하면서 팀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

경기 초반 타석에서 팀의 기회를 만들고 다음 타자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리드오프’가 제역할을 못하면서 팀도 불안한 상황이었다. 리드오프는 단순히 타석의 첫 번째 선수가 아닌 출루하는 것만으로 상대 투수에게 불안을 심어주고 팀의 득점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야구 공격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랬던 박찬호가 단 10일 만에 타석에서도 ‘디펜딩 챔피언’의 모습을 상기시켜 주고 있다.

부활을 알린 것은 지난 17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KT 위즈와의 경기였다. 이날 박찬호는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5회·7회·9회에서 연달아 불붙은 타선이 꺼지질 않았다. 이어 1-7로 무기력하게 패배한 18일 두산전에서 3타수 1안타 1볼넷을, 20일과 23일에도 모두 안타를 성공시키며 5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했다.

타율도 올랐다. 지난 15일 0.188이었던 타율은 24일 오전 기준 0.267까지 올랐다. 지난 2023년(0.301)과 2024년

(0.307) 모두 3할을 넘기는 타율을 냈던 것에 비해 아직 길은 멀지만, 기존 10경기의 부진을 딛고 올라선 기록인 만큼 기대가 되고 있다.

박찬호는 “항상 4월에 안 좋았으니까 좀 있으면 올라오겠지 이런 믿음은 있었는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팀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너무 힘들었다”며 “그동안 이정도로 부진이 심했던 적은 없었고 야구하면서 내가 못 치면 못 쳤지 하늘이나를 이렇게 버리나 싶었는데 이제 진짜 변비가 풀린 것 같아 시원하다”고 말했다.

더욱이 KIA의 호재는 이제 시작이다. 돌아온 김선빈과 돌아올 김도영이 한 자리에 모이기 때문이다.

중아리 근육 손상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했던 김선빈은 복귀 세 경기 만인 20일 첫 안타를 신고했다. 이날 김선빈은 2타수 1안타 1타점 2볼넷으로 완벽히 경기 적응한 모습을 보여줬다.

간판타자 김도영도 복귀를 눈 앞에 두고 있다. 김도영은 23일 함평-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2025 메디힐 KBO

퓨처스리그(2군) 삼성 라이온즈 2군과의 홈 경기에서 3번 타자·3루수로 선발 출전해 2타수 1안타 1타점을 기록하며 1군 복귀에 시동을 걸고 있다.

김도영이 25일 LG트윈스와 경기에서 1군으로 콜업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KIA는 박찬호-김선빈-김도영-나성범-위즈덤-최형우로 강한 타선이 계속 이어질 수 있어 KIA가 디펜딩 챔피언다운 위용을 조만간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글·사진·민현기 기자



지난 17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2025 신한 SOL 뱅크 KBO리그 KT 위즈와의 홈 경기를 마치고 KIA타이거즈 박찬호가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광주FC, AFC 챔피언스리그 도전기 담은 다큐 방송

‘언더독: 1%의 가능성, 99%의 믿음’

광주FC의 AFC 챔피언스리그 도전기를 담은 다큐멘터리가 tvN SPORTS를 통해 방송된다.

광주는 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8강에 오르기까지 도전하는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언더독: 1%의 가능성, 99%의 믿음’을 24일 밤 공개했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광주FC가 ‘대한민국 유일’, ‘창단 이래 최초’라는 수식어와 함께 ACL 8강에 진출한 역사적 순간을 담은 2부작 시리즈로, 선수단의 준비 과정부터 현지에서의 치열한 승부까지 생생하게 기록했다.

1화는 국내 훈련과 팀워크 형성, 전략 구상 등의 준비 과정을 중심으로, 2화는

사우디아라비아 현지에서 펼쳐지는 알 힐랄과의 8강전 경기 비하인드 및 팀의 여정을 집중 조명한다.

특히 광주FC 이정호 감독과 이민기, 아사니, 이강현 선수 등을 비롯한 주요 선수들의 진솔한 인터뷰를 통해 광주의 험난했던 여정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광주와 CJ ENM이 협업해 제작한 다큐멘터리는 편당 45분으로 1편은 24일 오후 11시에 선을 보였고, 2편은 5월 9일 tvN SPORTS에서 방영될 예정이다.

디지털 공개도 병행된다.

1화는 25일 오전 0시에 tvN SPORTS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업로드됐으며, 광주 FC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는 10일 뒤인 5월 5일에 공개될 예정이다.

민현기 기자

파리생제르맹 이강인, 사우디아라비아행 거론

시즌 후반 들어 입지 흔들

축구 국가대표 미드필더 이강인(파리생제르맹·PSG·사진)이 프랑스를 떠나 사우디아라비아로 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스페인 매체 ‘피차헤스’는 지난 23일(한국 시간) “이강인은 PSG에서 분투하고 있지만 예상보다 부차적인 역할만 맡았다. 그의 재능은 부인할 수 없지만 주전 경쟁이 치열한 팀에서 기회를 얻긴 쉽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이강인의 사우디아라비아 이적설이 유력해지고 있다. PSG는 이강인의 미래에 대해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적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울려를 동행이 끝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대로 이강인이 PSG와 재계약을 체결할 거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있다.

프랑스판 ‘골닷컴’은 “이강인은 조용했지만 꾸준히 시즌을 보내고 있으며 곧 PSG로부터 연장 제안을 받을 수 있다. 그



는 주전 선수는 아니지만 올 시즌 42경기를 뛰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강인의 다재다능함은 매력적이다. 미드필더와 윙어

그리고 폴스 나인(가짜 9번)으로도 뛸 수 있는 능력은 루이스 엔리케 감독에게 있어 흥미로운 옵션”이라고 덧붙였다.

이강인은 전방과 중원을 가리지 않고 쓸쓸하게 활용됐던 시즌 초반과 달리 후반에 접어들수록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이적설에 이어 이번엔 사우디아라비아 프로축구 프로페셔널리그 이적설까지 번지고 있다.

다만 시즌이 한창인 데다가 쿠팡 드 프랑스(프랑스컵)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우승 경쟁이 남은 만큼, 이른 시일 내에 거취가 결정되긴 어렵다.

연합뉴스

정현, 2025 광주오픈 챌린저 테니스 8강 안착

세계 170위 제임스 트로터 2-0 완파
잇단 서브 에이스·안정된 스트로크
122위 스쿨케이트와 4강 진출 다툼

한국 테니스의 ‘기린아’ 정현(29)이 2025 광주오픈 국제남자 챌린저 투어 테니스대회 8강에 진출했다.

세계 438위 정현은 24일 광주광역시 진월국제테니스장에서 열린 대회 본선 나흘째 남자 단식 2라운드(16강전)에서 세계 170위 제임스 트로터(25·일본)를 세트스코어 2-0(6-2, 7-6<1>)으로 완파하고 8강에 안착했다.

정현은 25일 세계 122위 트리스탄 스쿨케이트(24·호주)와 4강 진출을 다툰다. 한때 세계 19위까지 올랐던 정현이 궤조의 컨디션을 보이고 있어 랭킹 100위권대인 스쿨케이트를 상대로도 충분히 승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현은 이날 1세트 높은 타점을 이용한 강력한 서브와 안정적인 포핸드 및 양손 백핸드스트로크를 앞세워 트로터와 맞섰으며, 초반 게임 스코어 1-1로 팽팽하게 나갔다. 그러나 3번째 상대 서브게임 때 40-30으로 앞선 상황에서 트로터의 강서브를 멋진 리턴샷으로 연결해 점수를 따내며 2-1로 앞서 나갔다. 이어 자신의 서브게임에서 잇단 서브 포인트로 게임을 마무리해 3-1로 승부를 벌렸다.

6번째 자신의 서브게임 때는 40-0에서 멋진 서브 에이스로 게임을 따내며 4-2로 앞서 나갔다. 이어 상대 서브게임을 브레이크한 뒤, 8번째 자신의 서브게임 30-15에서 서브포인트 2개를 연속 성공시키며 첫 세트를 6-2로 기분 좋게 승리했다.

2세트에서도 게임스코어 4-4로 한치 양보없는 공방이 이어졌다. 정현은 9번째 게임에서 브레이크에 성공해 5-4로 앞서



정현이 24일 광주광역시 진월국제테니스장 센터코트에서 열린 2025 광주오픈 국제남자 챌린저 투어 테니스대회 본선 남자 단식 2라운드(16강전)에서 세계 170위 제임스 트로터(25·일본)와 경기하고 있다.

광주시테니스협회 제공

며 승기를 잡는 듯했다. 그러나 다시 힘을 낸 트로터는 두게임을 내리 따내며 6-5로 앞섰다.

정현은 물러서지 않았다. 12번째 자신의 서브게임에서 30-40으로 세트포인트 위기를 맞았으나 기어코 듀스를 만든 뒤, 서브포인트와 상대 에러로 6-6으로 기사 회생했다. 이어진 타이브레이크에서 정현은 스트로크 랠리 싸움에서 상대의 실수를 연발시키며 6-0으로 점수를 벌렸고, 결국 7-1로 1시간 40분 접전을 마무리했다.

앞서 정현은 이를 전인 지난 21일 1라운드에서 세계 180위 콩스탕 레스티엔느(32·프랑스)를 2-0(6-1, 6-4)으로 완파하며 기세를 올린 바 있다.

정현은 경기 뒤 공식 인터뷰에서 “처음 맞붙어 본 선수였고, 키가 크고 서브가 좋은 선수라는 걸을 알고 있었다. 리듬 맞추는 부분이 힘들기도 했으나, 초반 기회를 잘 잡아 경기를 잘 풀었던 것 같다. 부산에

서부터 계속 경기를 해서 기분도 컨디션도 좋은 것 같다”면서 “오늘 중간에 흔들려 위기를 맞은 것은 아쉽다. 계속해서 노력해야 하고 배울 게 아직 많다고 생각한다”고 경기 소감을 밝혔다.

‘구레 출신’ 세계 938위 박의성(24·대구시청)은 같은 날 열린 단식 2라운드에서 세계 110위 강호인 브랜든 홀트(27·미국)에 세트스코어 1-2(6-3, 3-6, 6-7<5>)로 석패해 8강에 오르지 못했다.

예선 2경기를 치러 본선에 오른 박의성은 이날까지 4게임에다 복식까지 강행군 탓인지 왼쪽 발바닥 물집 부상으로 경기 후반 무너졌다. 3세트 게임 스코어 5-2로 앞서다 내리 게임을 내주며 5-5 동점을 허용한 상황이 너무나 아쉬웠다.

이후 3세트 게임스코어 6-5에서 맞은 트리플 매치포인트 기회를 살리지 못한 뒤, 결국 타이브레이크에서 5-7로 고배를 마셨다.

최동환 기자



‘지역신문발전기금’
호남 유일 20년 연속 선정

인터넷 전남일보
www.jnilbo.com

모바일 전남일보
m.jnilbo.com